

# 해남 남창에 문화의 거리 조성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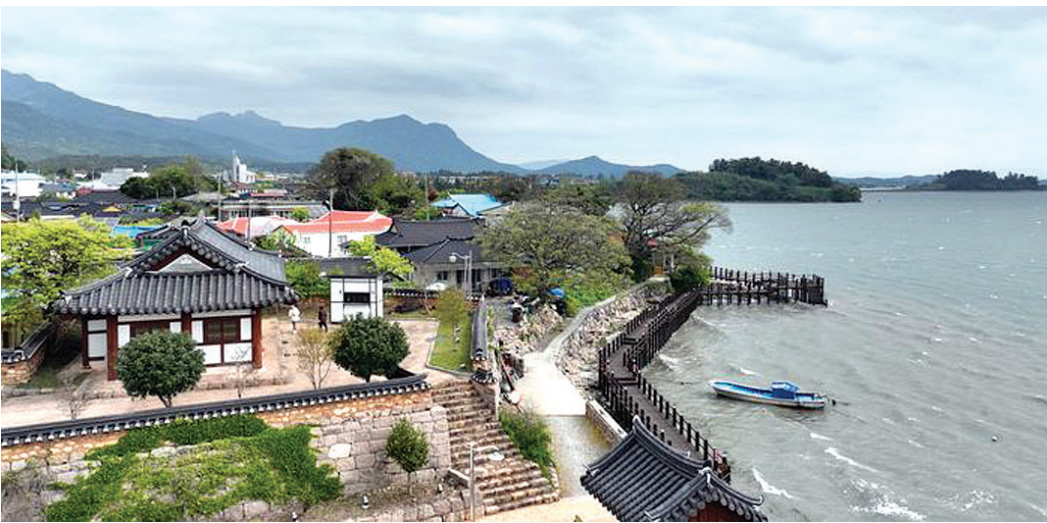
70~80년대 복고풍 거리 재현

영화 ‘호프’ 세트장 등 활용

역사문화 관광기반도 구축

해남군이 남창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나섰다. 해남군은 북평면 남창리 일원을 나훈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와 연계해 문화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영화 ‘호프’는 지난해 북평면 남창리 거리를 세트장으로 조성해 촬영됐으며, 현재 후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의 거리는 영화 배경인 1970~80년대 거리를 연출하고, 주요 촬영지에 상점 전면과 간판을 영화 촬영 당시 복원해 복고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다.

또 남창의 역사와 영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고, 옛 북평면사무소 건물을 원형으로 복원해 기념관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객들이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군은 현재 북평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 6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문화의 거리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남창리 일원은 완도군과 맞닿은 북평면의 소재지로 1555년(명종 10) 달랑진왜변 이후 이곳에



영화 ‘호프’ 세트장으로 조성한 북평면 남창리 해월루.

〈해남군 제공〉

곡식 창고인 남창(南倉)을 두어 남창이라는 지명을 갖게 됐다. 임진왜란의 전조전이라 평가되는 달랑진왜변이 발발한 역사적 현장이자 제주를 오가는 배가 폭풍을 피해 잠시 정박하는 해상통로로 오랫동안 이용돼 왔다. 왜구를 막기 위한 달랑진 성벽과 바다를 조망하는 해월루 등 역사문화자원이 재정비되고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해변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 의미를 담은 땅끝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인근 이진마을의 이진성지와 북평 용줄다리길, 남창 오일시장 등 독특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으로도 꼽히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북평면 일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특별한 장소로 꼽혀 왔다”라며 “영화 촬영을 계기로 이러한 특성을 더욱 살려 해남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의신면 초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가 선정

사업비 300억원 정주여건 개선

진도군은 의신면 초평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1유형)’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발표된 동헌항의 유형3(어촌 안전 인프라 개선) 선정에 이어 초평항이 유형1(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추가 선정되면서 진도군은 올해 사업에서 두 부문 모두 선정된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총 3조 원이 투입되는 법정사업으로 유형1은 어촌의 경제 기반과 공동체 중심의 플랫폼을 조성하는 분야다. 초평항 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돼 ▲어촌경제플랫폼 구축 ▲수산물 유통과 가공기반 확충 ▲관광·체험형 어촌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초평항을 진도군의 대표 관광미항으로 조성하고 대명관광단지(솔비치 진도)와 소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한 경제 거점 구축을 주요 목표로 한다. 진도군은 동헌항과 초평항의 공모 선정으로 올해에만 총 350억 원의 어촌 개발 사업비를 확보, 어촌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은 최근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 신안군,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 ‘젠걸음’

보고회서 30개 부서·50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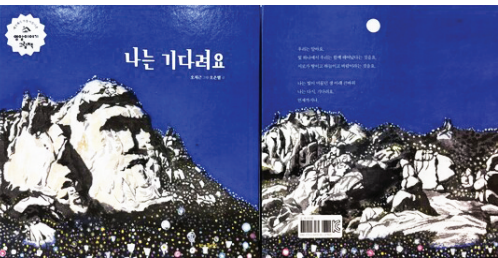
신안군이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대인 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생활인구 활성화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어 30개 부서에서 발굴한 50건의 생활인구 중심 시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머물며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을 목표로 추진됐다. 신안군은 풍부한 문화·예술·관광 자원 등 지역 교육

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각적인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보고된 주요 시책으로는 ▲지역 축제 연계 생활문화 기반 확충 ▲관광객 교통 운임 지원 ▲청년 유입 유도 ▲농촌체험형 쉼터 활성화 등이 제시됐으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또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실천 과제들이 논의됐다. 군은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시적 방문객을 정주인구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영암 월출산 큰바위얼굴 소재 그림책 출간

5번째 옛이야기 그림책

영암군이 ‘옛이야기 그림책 출간 사업’ 하나로 ‘장군바위’로 불리는 지역 대표 명소 ‘월출산 큰바위얼굴’을 소재로 한 그림책 ‘나는 기다려요’〈사진〉을 출간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전통 설화와 자연유산 등을 그림책으로 재해석해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나는 기다려요’는 지난해 출간된 ‘열두 번 노는 날’ ‘배짱 좋은 용기촌 사람들’ ‘바위틈 별천지’ ‘특별한 꿀과 특별한 친구’에 이은 그림책이다. 특히, 지난해 출간된 그림책 4권은 이탈리아 볼로냐 국제 도서전에 출품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나는 기다려요’는 부녀자인 오치근 동화작가와 오은별 작가 협업으로 탄생했다. 큰바위얼굴을 소재로 모든 생명은 하나의 빛에서 태어나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는 화해·사



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는 기다려요’는 영암군 도서관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그림책은 만국 공통어이고 세대를 뛰어넘어 공감할 일으키는 뛰어난 소통 매개체이다”며 “영암의 자연과 문화, 사람을 그림책에 담아 쉽게 알리고 오래도록 마음 깊이 남도록 만드는 일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무안군, 남악·오룡 순환 공영버스 신규 개통

오룡2지구 교통 공백 해소

무안군이 10일부터 남악·오룡지역을 순환하는 공영버스 333번 신규 노선을 개통해 본격 운행에 들어갔다. 333번 신규 노선은 남악지구와 오룡1·2지구를 연결하는 순환 노선으로, 목포 간선버스(1·2·3번)가 오룡2지구를 운행하지 않는 교통 공백을 해소해 군민 교통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33번 노선은 오룡차고지를 기점으로 ▲오룡2지구 신규 아파트 단지(시티프라디움, 푸르지오 파르세나,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힐스테이트) ▲남악 지역 주요 교육시설(오룡중, 남악고, 애향중, 목포대 평생교육원, 전남도립도서관) ▲남악 모아엘가 ▲남악시장 ▲남악복합주민센터 등 남악신도시 주요 지점을 순환한다. 노선은 하루 20회 운행되며 배차간격은 약 30분으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기존 100번 좌석버스와



남악·오룡지역을 순환하는 무안군 공영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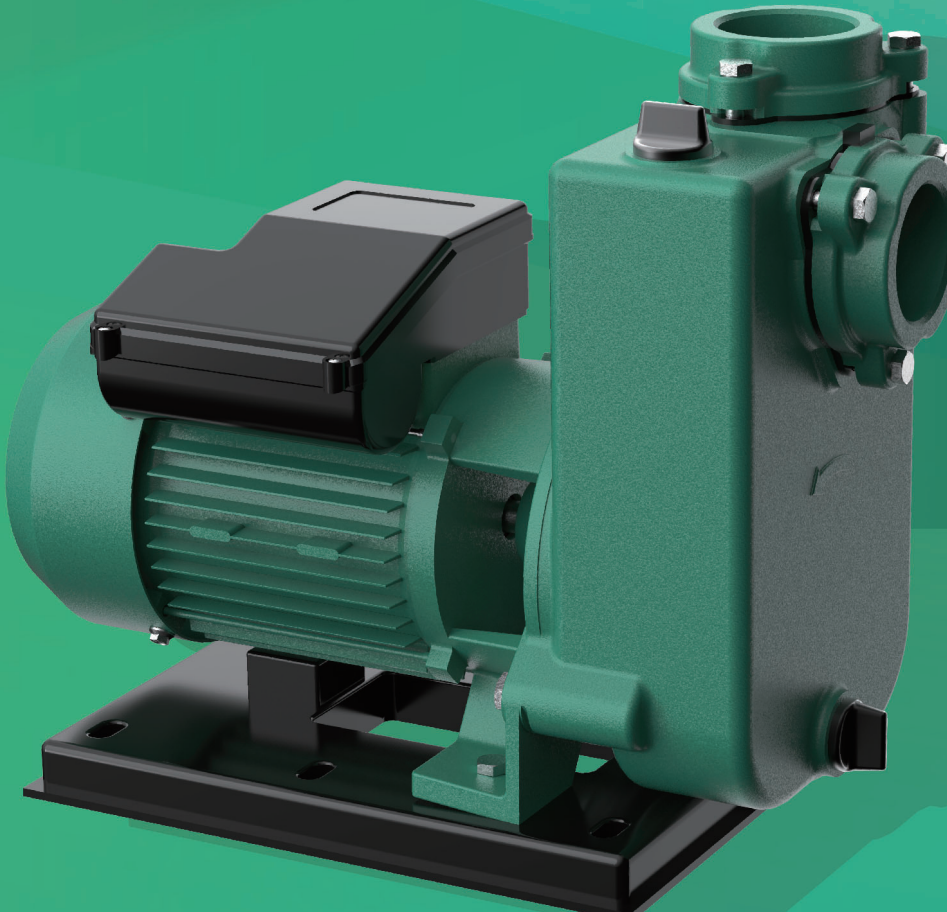
공공형버스 50번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자세한 운영시간과 노선은 무안군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정보-남악신도시 시내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령의 무안군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노선은 군민들의 실제 이동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통량 조사와 민원 접수를 바탕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무안=김민준 기자 jun@

## 목포시, 양육자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56명 대상...체험 중심 실습형 호응

목포시가 학령기와 영유아 가정 5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육자 부모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드림스타트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전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전문 강사를 지원받아,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령기, 유아, 영아로 구분해 놀이와 요리 만들기 등 체험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자들의 응을 얻었다. 1회차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고, 2회차에서는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동화 ‘미용실에 간 사자’를 함께 읽은 뒤, 주인공 인형 만들기과 미용실 역할 놀이 체험이 진행됐다.

3회차는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동화 ‘샌드위치 소꿉’을 읽고, 가족이 함께 샌드위치를 만드는 요리 활동으로 꾸며졌다. 4회차에서는 유아 가정과 함께 ‘소풍놀이’를 주제로 과일 도시락 만들기 및 소풍놀이 체험을 진행하며 교육을 마무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샌드위치를 만들며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 아이가 서툴더라도 스스로 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포시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전라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등을 지속 운영하며, 아동과 가족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